

# 도내 중기 제품 공공구매 확대한다

###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개최...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7개 지사, 48개 참여기업과 1:1 상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2017년 제1회 공공구매 전시·상담회가 개최됐다.

전북도는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도내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30일 오후 한국도로공사 대회의실(3층)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상담회는 도내 중소기업이 경영안정과 대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 제품의 공공기관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도로공사에서는 전북본부를 비롯하

여 7개 지사(전주, 부안, 진안, 무주, 논산, 부여, 보령)가 참여하여 도내 48개 참여기업과 1:1 상담을 했다.

상담회에는 사무용가구와 컴퓨터 등 사무기기 업체를 비롯하여 LED조명, 석제품, 콘크리트, 조명, 강관 등 도로건설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여 제품 홍보에 나섰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 여파로 도로공사 현장인력의 호흡기 건강이 염려되는 가운데 에어랩과 인텍 등 신개념의 산업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참여하여 도로공사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전북도가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탄소복합재를 이용한 스노우멜팅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내외 시판에 들어간 (쥬피치케이)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 연도 제품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상담회를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조승 기업지원과장은 “최근 경제 상황이 위축되어 도내 중소기업이 판

로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상담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가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북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가 활성화되도록 도청에서 14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2차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참여기업은 다음달 7일부터 16일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063-717-1342)에서 모집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행

전북도는 오는 6월 자동차세(정기분)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정기분 지방세만 가능하다.

따라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납부 가능한 신용카드는 9개 카드(BC, 삼성, 전북, 현대, 롯데, 신한, 제주, NH, 하나)이다.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정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올바른 손씻기 홍보 캠페인’

전북도는 전주시보건의료, 전라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현재 유행하는 수두, 수족구병 및 여름철 주로 발생하는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31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시민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감염병 예방의 기본인 올바른 손씻기 방법 6단계를 안내하고, 리플릿 및 스티커, 손소독제 등 홍보물을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수두와 수족구병은 환자의 침,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호흡기감염병으로, 불철 이후 환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설사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여름철에 발생이 증가하므로 음식 익혀 먹기, 끓인 물 마시기 등 위생적인 식품섭취와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300여명은 30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하나 되어 서남대 정상화를 외쳤다.

## “서울시립대를 서남대 재정기여자로”

### 공동대책위,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 낭독

교착상태에 빠진 서남대학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의회, 남원시의회, 남원시민단체연합, 서남대가 주축이 된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나섰다.

30일 오전 11시,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불볕더위 속에 300여명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하나 되어 서남대 정상화를 외쳤다.

이번 집회에서 이들은 그동안 방만한 관리 감독으로 구재단의 사학비리를 방관했고, 구재단과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해 서남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교육부에 대해 규탄했다.

또한 “현재 구재단의 서남대 정상화

계획은 한려대 폐교와 더불어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각 후, 서남대의 모든 기능을 아산 캠퍼스에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삼육대 역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매입 후, 의대만 취한 후, 나머지 단과대학은 아산 캠퍼스로 통·폐합하고, 삼육대 학생 100명을 의대만 남은 남원캠퍼스로 이동시킨다는 안을 제시한 상황이라 삼육대와 구재단의 결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삼육대를 재정기여자로 선택한다면 교육부도 구재단과 궤를 같이한다고 여길 것이며, 결코 이러한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라북도민, 남원시민, 서남

대 구성원이 원하고 내륙 서남권 유일의 종합대학으로 서남대를 정상적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서울시립대를 재정기여자로 조속히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이를 교육부에 전달하며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정민 서남대 정상화 공동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성명서 발표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의지를 보여준 시작일 뿐”이라며 “현재 교육부의 행태는 사학에 균형을 해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인 대통령 취임 이후 표방하고 있는 시대정신과도 맞지 않는 적폐”라며 “앞으로 교육부가 서남대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이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뜻을 거스른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견을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 전북홍보관 구성 6개 업체 전시·상담활동... 6월4일까지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2017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에 전북홍보관을 구성 참가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는 독일의 유명 박람회 개최사인 쾰른메세가 태국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식품전시회로, 2016년에는 40개국 1,900여개 업체가 참가, 130개국 4만 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동남아시아 최대의 B2B 전문 식품박람회이다.

태국 방콕 국제식품박람회 전북홍보관에는 유자차, 조미김, 스낵김, 수산가공품 등 제품을 생산하는 도내 6개 업체가 참가하여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전시 상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동남아

시는 전북도 농수산물 수출액의 28%(2016년 수출액 : 5300만 달러)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높은 경제성장률과 한류열풍에 힘입어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시장과 더불어 전북도의 수출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도의 동남아시아 국가 주요 수출 품목은 마른김, 닭고기, 비스킷, 만두 등이며 최근 우리 정부와 동남아 국가들과의 신선농산물 검역협상이 품목별로 진행 및 타결되고 있어 배, 포도,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수출 또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사드 영향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농식품 수출국의 다변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수출 신장시장으로 부상하는 동남아시아 농식품 수출 시장개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으로 되살리자”

### 박재만·조병서·정호영 의원, 어민 간담회 실시

전북도의회는 새만금 연안 어촌계 대책위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과 어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더불어민주당), 조병서 의원(부안·더불어민주당), 정호영 의원(김제·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새만금 해수유통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새만금 정책에 어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군산 새만금지역이 지역구인 박재만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어촌계를 방문,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어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왔다.

간담회 자리에서 새만금 연안 어촌계 대책위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해 새만금 안과 밖의 바다가 모두 죽어가고 있다며, 새만금 내측 바다와 외측 바다 모두를 살리는 길은 상시 해수유통”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새만금 내측 바다에서 오 염원 물이 새만금 앞 바다와 멀리 고창 앞바다까지 영향을 주어 약 70% 이상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종 또한 크게 감소하여, 어로 작업하여도 채산성이 없다”며 한탄했다.

또한 “새만금 내만에서 자라 바깥 바다로 나온 해파리의 창궐로 어구를 한방에 날리기도 한다”며, “해파리의 창궐은 새만금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 전에 넘쳐나던 꽃게, 생합, 대하, 민어, 광어, 갑오징어, 참돔, 농어 등이 주로 잡혀 채산성 있는 어종을 잡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숭어, 전어, 망둥어, 바지락 치패 등을 잡고 있어도 채산성이 없는 어업에 어민들이 지는 형국”이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전북도는 “해양수산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말하고 있지만, 새만금 바다가 죽어가고 있는 이상 헛구호이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어민들은 대안으로 “상시적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 바다를 되살리려면,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이 가능하며, 전북도의 염원인 해양수산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만금의 생태적 가치를 높여 생태관광 및 레저산업의 유치와 여로작업을 통한 1차 산물과 2차 가공품을 판매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박재만 의원은 “새만금 물막이 공사 이후 30여 년 지난 지금까지 새만금 연안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삶을 포기할 지경까지 이르러 되었다”며 “해수유통 민이 새만금을 살리는 길임을 절감하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어민들의 의견이 신정부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